

지역 소식통

완주군, 빈집 반값임대사업 전개

완주군이 빈집을 정비해 반값으로 임대한다.

지난 31일 완주군은 관내에 흉물로 방치된 빈집을 정비해 경관을 개선시키고, 입주자에게는 쾌적한 복지환경을 제공하는 '빈집활용 반값임대주택 제공사업'을 전개하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 10월말까지 신청대상자 중 2동만을 한정해 지원하며, 신청은 관내 빈집의 소유자면 누구나 가능하다.

1동당 개량비 1,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초과비용 발생 시에는 건물주가 부담해야 한다.

개량 완료 후에는 주변시세의 전, 월세 반값으로 5년간 임차인(임주대상자)에게 임대해야 한다.

의무임대기간 5년 후에는 건물주 자신이 직접 거주하거나 기타 편의적 이용 가치가 있는 대로 활용을 모색하면 된다.

완주군은 이번 사업이 경관 개선과 주거 공급까지 이뤄지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해당사업의 자세한 사항은 완주군 홈페이지 게시판 고시공고란과 읍면 자치센터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완주=이종복 기자

김제농기술센터, 예초기 안전사고당부

김제시농업기술센터에서는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주말과 휴일 조상의 묘소에서 벌초를 하다 예초기를 잘못 다루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가하면 독이 오른 뱀에 물리거나 벌에 쏘이는 사례가 해마다 늘고 있어 벌초 과정에서 일어나기 쉬운 불의의 안전사고 예방을 당부하고 있다.

김제시농업기술센터에 따르면 먼저 예초기는 칼날 안전 덮개를 반드시 부착하고 각부의 나사 조임을 확실하게 한 다음 시동시에는 급유장소에서 3m 이상 떨어진 장소에서 예취날을 지면에서 띄우고, 시동로프를 당길 때 주위 공간을 충분히 확보한 다음 시동을 걸어야 하며 작업 중에는 사람이나 동물 등과 15m 이상 거리를 두도록 당부하고 있다.

또한 작업 시 어깨걸이 밴드나 핸들위치를 조정해 무게를 맞춰야 작업 피로도 줄일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예취날의 회전방향은 반시계방향이므로 반드시 작업자의 오른쪽에서 왼쪽방향으로 예취작업을 해야 하며 장애물에 부딪힐 경우 날이 손상될 수 있으므로 수시로 점검하고, 적정 회전속도 및 적정 작업시간을 준수해야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고 한다.

/김제=곽노태 기자

구독 · 광고문의 288-9700

완주 으뜸상품권 카드로 구입 가능

이달부터 농협은행 완주군청 출장소서 판매... 구매처 확대 키로

완주 으뜸상품권을 카드로도 구매할 수 있게 됐다.

지난 31일 완주군은 이달부터 농협은행 완주군청 출장소에서 농협카드를 완주 으뜸상품권을 구매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완주군의 상품권 카드구매는 농협은행 전주완주시군지부와 업무협약을 통한 시스템 구축으로 가능해진 것으로 그동안 카드구매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있어왔다.

완주군은 판매량 추이를 살펴보고, 상품권 구매처를 관내 농협 전체로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특히, 올해부터 으뜸상품권 액면금액의 할인율을 3%에서 5%로 적용하면서 판매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이번 카드 구매가 판매량에 긍정적 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으뜸상품권의 판매실적은 7월말 기준 16억 3,000만원에 달한다.

한편 완주 으뜸상품권은 완주군에서

만 사용할 수 있는 지역화폐로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전통시장 육성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2015년 5월부터 발행 운용하고 있다.

유흥업소와 대형마트를 제외한 완주군 관내 전통시장은 물론 음식점, 주유소, 로컬푸드 직매장, 슈퍼, 미용실 등 다양한 가맹점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으며, 현재 완주군 관내 가맹점은 1,100개를 넘어섰다.

/완주=이종복 기자

김제시 재정공시 홈페이지 공개

2016년 총 살림규모 7744억원 전년대비 350억원 증가

김제시는 지난 31일 2017년 김제시 재정공시(결산)를 통해 지난해 살림살이를 홈페이지(www.gimje.go.kr)에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2016년도 결산결과에 대한 재정공시는 김제시의 살림규모, 재정여건, 부채·채무·채권현황 등의 재정운용 결과를 담고 있다.

이 자료에 따르면 2016년 김제시 살림규모는 7,744억원으로 전년대비 350억원이 증가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에 의한 자체수입이 785억원으로 전

년대비 132억이 증가하였고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 등의 이전재원이 5,238억원으로 전년대비 60억이 증가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김제시의 이 같은 살림규모는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액보다 999억원 많은 수준으로 자체수입은 유사단체 평균액 1,113억보다 328억원이 적으나 이전재원은 유사단체 평균액 3,852억보다 1,387억원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이는 김제시의 지속적인 교부세 및 보조금 확보노력이 성과를 나

타낸 것으로 파악된다.

한편 김제시의 채무는 257억원으로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액 226억원에 비해 31억 많은 것으로 집계되었으나 올해 지속적인 채무절감 노력을 통해 8월 31일 현재 지방채 220억원을 상환하여 잔존채무가 37억으로 분석되었으며 잔존채무도 2017년 말까지 는 전액 상환할 예정이다.

또한 공유재산 보유현황은 토지 3,000여, 공작물 6,595여 등 1조 2,341억 원 규모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는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액과 비교하여 38억원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시 안전개발국, 신규 국가예산 사업 발굴 보고회 가져 2019년·2020년

김제시 임성근 안전개발국장은 지난 31일 국부서장 10명이 모인 가운데, 새정부 국정과제 방향과 중점분야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2019년·2020년 신규 국가예산 사업 발굴 보고회를 가졌다.

이번 보고회는 지난 7월 19일 문재인 정부가 국정운영 5개년 및 100대 국정과제를 발표함에 따라, 이와 연계한 각종 현안사업을 2019년·2020년 국가사업에 반영하기 위한 전략과 미래비전 설계를 위해 마련되었다.

새만금 개발, 미래전략 산업 육성, 도시재생뉴딜 사업, 지역숙원사업 해결, 일자리창출, 정주여건 개선 등을 중점방향으로 하는 12개 신규사업을 검토하고, 사업의 타당성, 시급성, 추진전략 등 정부사업 반영 논리개발에 중점을 두고 진행되었다.

임 국장은 "향후 중앙네트워크와 적극 소통하고 정책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2018년 예산편성에 체



김제시 임성근 안전개발국장은 지난 31일 국부서장 10명이 모인 가운데, 새정부 국정과제 방향과 중점분야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2019년·2020년 신규 국가예산 사업 발굴 보고회를 가졌다.

계적으로 대응해나갈 방침"을 밝히며, "지금은 새정부의 국정과제 및 국가균형발전 전략 등과 연계한 미래비

전 발굴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으로, 한 발 앞서 대응해 줄 것"을 주문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시,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 개최

사회복지 유공자 표창·기념식·축하 공연 벌여

김제시는 지난 31일 김제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제18회 사회복지의 날을 맞아 '김제시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 및 축제 한마당'을 개최했다.

'모두가 누리는 포용적 복지'라는 주제로 개최된 올해 사회복지의 날 기념행사는 김제시가 주최하고 김제시사회복지협의회가 주관했으며 이진식 김제시장을 비롯한 전라북도의원, 김제시의원, 이병관 전라북도사회복지협의회장 등 사회복지 관계자들과 사회복지 기관·시설 이용자, 자원봉사자, 시민 7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진식 김제시장은 축사를 통하여 "사회복지인 모두가 추구하는 아름다운 삶의 울타리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해 다함께 잘사는 김제

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며, 참석한 사회복지종사자들에게 그 동안의 노고에 대해 격려하고 앞으로도 김제시 사회복지 발전에 견인차가 되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앞서 최병철 김제시사회복지협의회장은 "김제시 사회복지협의회는 앞으로도 민간·공공을 연결하는 전달체계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할 것이며, 사회공헌 플랫폼 구축으로 지역복지 현안 해결을 위한 각종 사업을 개발·추진해 나갈 것이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이날 행사는 1부 기념식과 2부 축하한마당으로 이루어졌으며 1부에서는 사회복지유공자 표창과 기념식이 실시되었고 2부는 축하공연으로 마무리 되었다.

/김제=곽노태 기자

완주군, 대한민국 독서대전에 참여

완주군이 전주경기전, 한옥마을 일원에서 개최되는 국내 최대 규모의 독서축제 '2017 대한민국 독서대전'에 참여한다.

지난 31일 완주군은 9월 1일부터 3일까지 열리는 2017 대한민국 독서대전에서 '책 읽는 지자체' 대표로 참여해 '책 읽는 지식도시 완주' 부스를 경기전 입구에서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곳에서 완주군은 4개 공공·10개 작은도서관이 참여해 '도서관에서 완주(完州)하자'를 주제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선보인다.

우선 책 읽어주는 문화봉사단의 전시와 직접 그림을 그려보고, 완주 홍보 부체에 자신의 그림을 직접 붙여 보는 체험 프로그램도 진행한다. 또 맘미독서회의 '공취팔취 인형극

과 미니북 만들기, 책 읽은 만큼 기부로 이어지는 기부리더 기부리더 사업 홍보도 전개한다. 이밖에도 2017 완주군 올해의 책 등을 적극적으로 알린다는 계획이다.

한편 2017 대한민국 독서대전은 전주·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는 행사로 전국 출판사 85개, 독서단체 40개, 독서경영 우수 직장 4개, 평생학습한마당 등 23개 기관, 단체가 참여한다.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여유숙 관장)이 주관하는 '작가님 책 읽어주세요', '전시와 뮤지션이 함께하는 풍요부르기', '최덕규 작가가 함께하는 책 이야기' 등 다양한 행사가 열린다.

/완주=이종복 기자

Advertisement for 'Imshil Cheese' (임실치즈) featuring various cheese products and a scenic background of a cheese farm. Text includes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 임실치즈' and '별기에 출신 지정한 신부(Didier 'Serstevens)가 국내 최초로 개발 보급한 한국 치즈산업의 원조 임실치즈'.